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허 병 두

〈숭문고등학교 교사〉

목 차

Ⅰ. 정보화 시대의 독서 교육과 문제점
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Ⅲ. 학교도서관 전용 컴퓨터 통신망 구축(試案)
Ⅳ. 맺는말

최근 각급 학교에서 독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중심의 본고사 도입과 같은 사고력 중심의 대입 제도의 변화가 주원인임을 아쉽지만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대입 제도의 변화 역시 종래의 학교 교육이 암기 위주의 단순 지식만을 잣대로 하는 입시 준비에 불과했다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출발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어떻게 독서 교육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이제, 21세기 첨단 정보 사회를 맞이하여 오늘, 바람직한 독서 교육은 어떠해야 하며, 그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 도서관은 도대체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가에 대해 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Ⅰ. 정보화 시대의 독서 교육과 문제점

1. 독서 교육의 개념확대

전통적인 의미에서 독서는 인격 형성과 수양을 가능하게 해 주는 고도의 정신 활동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독서의 개념은 그 보

편성에도 불구하고 종종 고답적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즉, 독서는 어디까지나 고상한 정신 활동으로서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나 허용되는 것이라는 태도와 연관 되는 것이다. 그 결과 책은 어느정도 어려워야만 좋은 책이며, 독서는 모든 어려움을 참고 책 안에 숨겨진 정신적인 향훈을 찾아내는 수도 행위와도 같이 이해된다.(* 이러한 사고의 일단은 책은 고전만을 읽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종종 이어지며, 베스트 셀러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문자와 서적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일부 특권층들에게만 독서가 가능했던 근대 이전의 상황과 밀접히 연관된다. 다시 말해, 대중 교육으로 문자를 해득한 층이 두터워지고 경제적인 여유로 늘어난 여가 시간의 선용을 책읽기에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근대에 들어서는 독서의 개념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인격의 차원'과 연관되는 기존의 보편적인 독서 개념에 '여가 선용의 차원'이라는 새로운 측면이 본격적으로 덧붙여진 셈이다. 정신적인 사유와 명상과는 일정 거리를 두고 오락적이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즐거움을 주는 독서는 모두 여가 선용 차원의 독서에 속한다.

물론, 앞으로도 독서의 '여가 선용'측면은 정통적인(?) 독서교육을 교수하는 입장들로부터 여전히 외면당할 듯싶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이미 여가 선용의 차원에서 독서를 일상화하고 있다는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 따라서 여가 선용 차원의 독서를 무조건 무시하는 대신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테면, 무협지에 대한 독서지도도 이루어져야 한다. 독서 자체에 흥미를 잃은 학생들에게 흥미를 돋궈 주는 무협지를 처방해 줄 수 있으며, 너무 탐닉하는 학생들에게는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제력과 필요성을 힘주어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요즘과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독서는 주로 시각매체를 통해 필요한 정보의 입수와 정리, 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정보가 중요한 가치가 되는 정보화 사회에서 독서란 언제나 중요하다. 즉, 책 읽기란 지적, 정신적 성숙을 꾀했던 기존의 관념적 차원에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정보화 시대를 헤쳐 나감에 매우 필요한 실제적 차원으로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바꿔 말해, 책읽기란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 이미 필수적인 차원으로 변화된 것이다.

앞서 말했듯 근래 초중등학교의 독서 중시 현상이 입시제도 변화에 힘 입은 바 크지만,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독서가 매우 중요한 필수적 생존 행위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독서는 한 인간이 진정한 인간 존재로 성숙하기 위하여, 여가 생활을 건전하게 보내기 위하여, 그리고 정보화 시대를 헤쳐 나감에 매우 필요한 실제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2. 새 교육 과정의 독서관

독서에 대한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갖고 있느냐

는 독서 교육의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96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1992)은 독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글에 나타난 정보와 독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의미를 재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자는 지적 능력을 신장시키고 정서를 함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문명의 발전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별도 교과목으로 책정되어 교실에서 실질적으로 독서 지도를 하게 되는 '독서 과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국어' 과목의 교육 성과를 바탕으로 독서의 본질과 원리를 이해하고, 독서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여, 독서에 대한 올바른 태도 및 습관을 형성하게 하는 과목이다. 또한, 고등학교 '독서' 과목을 통하여 신장시켜야 할 지식, 기능, 태도와 관련되는 내용 요소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어' 교과목의 '읽기'영역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 요소들의 체계적인 통합인 동시에 심화/발전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독서란 한 편의 글을 얼마나 잘 읽어 가는가와 연관된 '독해' 활동이다. 독서 과목 또한 단어 이해 기능과 독해 기능을 원리로 하는 독해 과목일 뿐이다. 새 교육 과정에서 독서 독해 지도란 독해 지도의 동의어나 마찬가지다.

"독서 과정은 일반적 사고 과정과 유사하므로, '독서' 과목의 지도에서는 독해 과정의 지도에 힘쓴다."

독서와 독서 과목 지도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독서란 '글을 읽는 것'이며, 글은 언어이기에 언어 차원의 지도가 가장 적절하다는 사고의 연장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는 몇 가지 점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갖는다.

먼저 독서 과목을 단순히 국어 교과의 하부로 설정하여 '독해' 차원에만 집중하는 입장을 택함으로써 정보의 수집과 정리, 창출이라는 정보 폭발 시대의 새로운 독서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그저 문자 해득의 상위 단계로서 글의 온전한 이해에 급급할 뿐이다.

또한, '읽기' 영역을 비롯하여 기존의 '국어' 교과목의 지도에서 충분히 수행될 수 있는 목표들을 통합적인 지도라는 명목으로 중복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또 하나의 교과목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독서가 단순히 주어진 글을 얼마나 잘 읽어냈는가의 기능으로만 오해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가에 집착하는 교과 교수의 특성상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여 능동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는 태도의 형성에는 치명적인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주어진 과제의 성공적 독해는 가능하겠으나 어떤 책을 어떻게 읽어가야 가장 효율적인가를 끊임없이 사고하고 반성하는 고차원적인 능력을 얻기는 힘들며, 이는 노우 하우(Know-how)에서 노우 웨어(Know-where)를 중시하는 정보 중심의 시대 변화를 전혀 반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치명적이다.

교과목 위주의 독해 과정으로 독서 교육을 하자는 이런 입장은 도서관과 전혀 상관없이도 독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모순을 낳는다.

즉, 교실 차원에서 독서 교육을 시도하기 때문에 도서관은 책 보관 창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3. 독서 교육의 일반적인 문제점

독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사는 물론, 학생과 학부모, 교육행정가 모두 독서 활동을 능동적인 정신 활동으로 인식하는 데 미흡하다. 이는 독서 활동의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확신하지 못함을 뜻한다. 나아가 독서를 정보 사회의 도래와 연관시키는 총체적 사고를 하지 못함을 뜻한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가치관을 지나치게 고집하며 사서를 창고지기 정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독서 지식을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된 인식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 방식의 낙후성은 독서 교육의 또다른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그저 독서 지도를 조용하게 책이나 읽게 하는 감독 정도로만 생각하는 수준에 우리의 독서 교육은 대부분 머물러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흥미를 역동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대신 일방적인 주입식전달로 오히려 바람직한 독서 교육에 해를 끼치고 있다. 앞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독서」과목이 취하고 있는 관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서를 기능주의적 입장에 치우친 독해력 정도로만 협소하게 인식하여 정보화 사회를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갈 유능한 정보인의 양성에는 아예 상관하지 않는다. 이러한 입장이 계속 되는 한, 독서는 「독서」라는 교과목에 단순히 머물 뿐 정보화 시대의 필수적인 교육 활동으로 발전되기 힘들 것이다.

덧붙여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면 추천 도서 목록의 경우도 문제점이 적지 않다. 개인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도식적인 나열 형태를 띠고 있으며 과거 일본에서 중역된 세계 명작 목록이 아직도 회자되는 등 목록 자체가 지나치게 구태의연한 성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고전들은 제대로 번역도 되지 않는 채 명사들의 자기현시용으로 추천되고 있는 것 역시 심각하다. 이밖에도 우리의 독서 교육 현실의 열악함을 드러내는 증거들은 하나둘이 아니다.

Ⅱ.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역할

현대의 학교도서관은 기존의 틀을 거부한다. 선진국의 경우 이미 1960년대부터 '학교도서관(School Library Media Center)', '학교 매체 센터(School Media Center)', '교육 매체 센터(Instructional Media Center)' 등으로 명칭이 바뀌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책'중심의 사고에 얽매인 나머지 새로운 시대 변화를 담아내는 데 적합하지 못하다는 자각과 관련된다.

단지 외적 명칭뿐만 아니라 그 내적 본질에 있어서도 현대의 학교도서관은 '책'을 포함하여 각종 매체들(전자 매체, 시청각 매체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교육정보자료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학교도서관은

'독서 활동의 장, 학습 활동의 장, 자료 제공의 장, 정보 제공의 장, 레크리에이션의 장'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보화 시대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구현해내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도서관이 거의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해서 명칭에 대한 반성조차 변변치 않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교육의 개혁은 학교도서관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그 어느때보다도 집중시킬 필요가 있다. 참다운 인간 교육과 내실 있는 장래 교육을 펼 수 있는 공간, 능력을 개발하고 교양을 쌓으며 정보화의 시대적 물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공간으로서 학교도서관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럼,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은 과연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몇 가지로 살펴 본다.

1. 독서 교육의 거점 추구

지금까지의 독서 교육은 열정적인 교사들 개인이 자신이 맡은 반을 중심으로 실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급 문고 차원의 이러한 독서 지도 형태는 아이들에게 책을 좀더 가까이 해 줄 수 있으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도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욱이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학교측의 별다른 지원 없이도 담임 혼자의 힘으로 학급 문고를 운영할 수 있었기에 많이 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년 단위라는 시간적 한계 때문에 장기적인 독서 지도계획과 체계적인 자료 개발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학년별, 수준별, 상황별 독서 지도가 어려우며 업무의 질적/양적 효율성으로 볼 때 학급 문고 형태의 독서 지도는 문제가 많다. 특히, 뉴 미디어의 발달로 요약되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하는 데에 학급 문고는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 이는 물론 학급 문고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은 아니다).

반면에 학교도서관 중심의 독서 지도 형태에서는 전문 사서(매체전문가 Media Specialist)가 핵심이 되어 입학부터 졸업(이후)까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 더욱이 각 교과별 교사들로 이루어진 도서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었을 때에는, 과목별 교과 내용과 독서 지도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여기에 학교도서관이라는 교육 공간 자체가 주는 정서적 해방감과 독서에 대한 적극적 동기부여는 그 어느 형태의 독서 지도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교의 독서 교육은 반드시 학교도서관 중심으로 고안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무엇보다도 각 학교의 도서관이 새롭게 인식되고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학교도서관이 자습실이나 창고로, 최악의 경우 그저 서류상에만 있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학교 도서관 중심의 독서 지도 계획은 부록 참조)

2.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용 유도

도서관은 자료의 '보관'과 '이용'이라는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을 갖는다. 이때 '보관'에만 치중

하면 도서관은 이용자들로 부터 멀어지게 되어 '납골당'의 역할로 전락한다. 반면에 '이용'에만 치중하면 희귀한 귀중 자료는 커녕 일반 자료 등도 제대로 보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보관'과 '이용'이라는 두 측면을 골고루 조화시키되, 가능한 한 '이용' 위주로 도서관을 운용하는 것이 좋다.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1)학교도서관의 소개와 안내, 2)자료활용 능력의 함양, 3)적극적인 이용 자세 유도 등으로 나누어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1) 학교도서관의 소개와 안내

도서관이라 하면 흔히들 시내 곳곳에 널려있는 독서실을 떠올리기 쉽다. 또한, 실제로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온다는 학생들의 대부분 역시 그곳의 자료들을 이용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책, 그것도 입시 위주의 학습서들을 밑줄 그으며 외울 뿐이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도서관이 독서 지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입학초 학생들에 대한 학교도서관 안내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도 학교도서관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해 쉽고 친근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학교도서관의 구조와 시설, 장서의 종류와 양, 구체적인 이용 방법과 장서 목록 등을 간단한 유인물로 제공해 주면 효과적이다. 나아가 올바른 독서를 위한 도움말, 읽을만한 책들의 목록을 담은 자료를 학생용, 학부형용으로 배부하면 더욱 좋다.

2) 자료 활용 능력의 함양

정보화 사회에서 흔히 언급되는 정보력은 필요한 정보들을 가능한한 빨리, 모두 찾아 창조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다. 독서력 또한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 바,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이성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바, 학생들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이성과 감성을 심화시켜 나가는 종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책을 스스로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 도서관 자료 이용에 꼭 필요한 '분류'와 '목록'에 대한 제반 사항을 학생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찾은 책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을 기리는 것도 중요하다.

3) 적극적인 이용 자세 유도

도서관은 설립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으로, 설립 목적에 따라 공공/학교/특수 도서관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학교도서관은 정보와 문화의 중심 기능을 하는 모든 도서관들의 기초 단계로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에서는 졸업 후에도 각종 도서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세를 길러 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듯 학교도서관은 '과정'을 통하여 교육하는 공간이다. 학생들은 학교도서관 이용을 통해 준법성과 합리성을 키울 수 있으며, 능동적인 자세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다음과 같은 행사를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다. 1)각종 독서 경시대회(독후감/독서 퀴즈 대회, 독서왕 선발대회 등) 2)도서관 회보를 비롯한 각종 독서 참고자료의 제작과 배부

3)도서 전시회 도서 전시회 4)내/외부 인사초빙 강좌 5)교실과 도서관 게시판에 붙일 독서(도서관)관련 자료 개발 6)공개토론회 등등… (* 도서관 중심 독서 지도 계획은 부록 참조)

3. 통합 교육적인 독서 활동 강조

독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관 관련 활동은 꼭 필요하다. 이때 도서관 관련 활동이라 함은 도서관 자체에 대한 이론적 지도는 물론, 도서관 견학과 같은 현장 학습을 포함한다. 특히 도서관 견학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독서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준다.

도서관 방문은 방문 주체의 수준에 따라 일반 도서관에서부터 전문 도서관, 특수 도서관쪽으로 순서를 잡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먼저 도서관에 대한 일반적 중요성과 종류, 도서관 자료의 분류 체계와 각종 목록의 종류, 방문 예정 도서관의 특성을 가르쳐 주고, 방문할 때 지켜야 할 점, 조사해야 할 점 등을 미리 알려 준다.

만일 집단 방문이 어렵다면 개별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좋다. 이 때는 도서관 이용 규칙, 유의 사항, 이용 시간, 휴관일 등을 자세하게 조사해오도록 과제로 내 주면 좋다. 나아가 '도서관 책 가운데 우리 학교도서관에도 있었으면 하는 책들을 다섯권 정도 적어 오라,' '방문한 도서관에는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더라'는 식으로 학생들이 특히 부담감을 갖지 않을 범위 안에서 도서관을 적극 이용하게 만든다.

방문이 끝나면 현장, 혹은 교실에서 총정리에 해당하는 마무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를테면 도서관(독서)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료로 만들어 배부해 준다든지 미처 학생들이 조사해 오지 못했을 내용들을 가르쳐 준다.

이 밖에도 공공도서관 등에서 진행하는 도서관 문화학교, 독서 교실, 각종 독서회 등은 학생들에게 건전한 자극을 많이 주므로 집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 해당 지역의 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이 서로 연계하여 학생들을 위한 바람직한 독서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미래 지향적 태도 중시

"도서관은 성장하는 기관"(랑가나단)이라는 말처럼 학교도서관은 가장 미래 지향적인 태도로 안팎의 제반 요구에 발맞춰 학교 교육의 이상을 구현해야 한다. 따라서 학교도서관은 교실 중심의 학교 교육이 갖는 한계를 본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교육 공간으로서 늘 학교 교육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학교도서관은 독서 교육을 매체 교육의 차원으로 확대시켜야 하며, 학생들에게는 정보 마인드의 확산을 시도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관련 자료들을 즉각 폭넓게 입수하고, 뉴 미디어들을 직접 도입, 실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쉽고 친근하게 여기며 정보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컴퓨터 통신망의 유용성 등을 직접 시범/활용하여 그 유용성을 몸소 실습을 통해 체감하게 만들어 정보화 시대에 부적응 현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 준다. 특히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 통신망 구축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Ⅲ. 학교도서관 전용 컴퓨터 통신망 구축(試案)

1. 컴퓨터 통신의 기초

컴퓨터 통신망이란 개인이 갖고 있는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시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네트워크이다. 흔히 전화선을 이용하는바, 통신망이란 화상 전화의 체제를 갖고 있다고 보면 된다. 다만, 아직 영상 처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컴퓨터 상에서는 글자나 화일의 형태로 정보를 처리하고, 공유하는 것이 기본이 된다. 특히, 개인이 아닌 대형 컴퓨터를 연결 대상으로 삼으면 그 안에 수록된 많은 각종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최근,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대표적 통신망으로서는, 한국 PC통신(주)의 하이텔(HiTEL)과 데이콤(주)의 피씨서브(PC SERVE) 등이 있다. 하이텔은 한국피씨통신주식회사의 코텔(구 케텔)이 한국통신의 하이텔과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국내 최대의 통신망이다. 데이콤이 피씨 서브를 통해 DB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 한국PC통신의 하이텔은 이와는 달리 밴(VAN)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컴퓨터 통신의 발전은 컴퓨터(저장)와 통신(전달)의 만남인바, 온라인(on-line)상에서 학교도서관의 봉사를 일정 수준까지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력적이다. 우리 나라의 교사들은 이제 칠판에서 벗어나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정도지만, 앞으로는 모니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만날 날이 분명 올 것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연구하고 응용해야 할 분야가 바로 컴퓨터 통신인 셈이다.

2.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매체 센터의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나라의 학교도서관 분야에서 조차 컴퓨터 통신 분야는 깊이 있게 탐색/응용된 바가 없다. 오직 국립중앙도서관의 '문헌 정보'만이 사설 컴퓨터 통신망 회사들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을 뿐, 도서관 주도의 전용통신망 구축은 커녕 지금까지 축적해온 많은 도서관 관련 업적들이 종합적인 데이타 베이스 형식으로 구축되어 각종 도서관과 일반인, 학생들에게 편리하게 제공된 경우는 없지 않은가 싶다.

특히, 학교도서관의 경우 21세기 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교육 혁명과 정보 혁명의 결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도서보관 창고의 구실에 머물러 있다. 편제상으로도 학교도서관은 대개의 도서관이 문화체육부 산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관으로 남아 있으며, 어떤 형태의 지원도 못 받고 있다는 점에서 쉽사리 활성화의 방안을 찾기가 힘들다.

설령 획기적인 도서관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학교도서관의 시설, 인력, 자료 등에 투입되어야 할 엄청난 경제적 부담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선진국의 도서관에 비해 수십년 간 뒤떨어진 학교도서관의 현실로 비추어 볼 때, 외국의 사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길

을 걷는다면 학교도서관의 발전이 그리쉬운 일은 아니다. 예컨대, 현재 우리 학교도서관은 도대체 몇 개이며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수 없는 현실의 벽은 매우 높은 것이다.

1년에 단 한번 통계용 보고자료 공문만 받을 뿐, 설령 도서관 시설과 인원, 자료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을지라도 학생들의 이용이 보장되고 교육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이 학교도서관의 현실인 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은 대단히 난감한 일이다. 이런 맥락에서 컴퓨터 통신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넓은 차원의 독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컴퓨터 통신망을 구축하면 우선 크게 힘들지 않고도 정확한 현황 파악과 각급 학교도서관의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특히, 학교도서관 대회를 빼고 이렇다하게 만날 수 없는 전국의 학교도서관인들이 매일 자택의 PC앞에서 모니터를 통해 서로 실질적인 정보교환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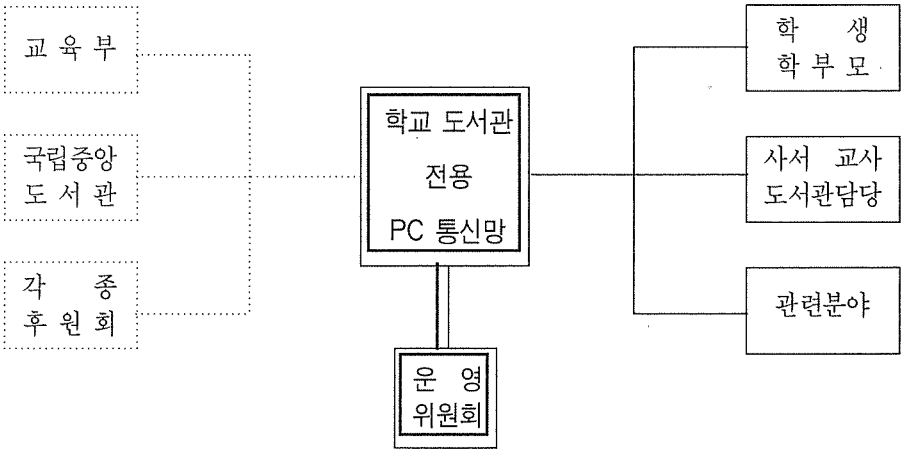
3. 통신망 구축의 제반 검토 사항

당장 독립적인 학교도서관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기란 여러가지 점에서 적잖은 부담이 따른다. 그러므로, 기존의 사설 통신망의 일정공간을 활용하여 구축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를테면, 국립중앙도서관이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문헌 정보'서비스 란을 확대 개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듯싶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문화체육부)과 학교도서관(교육부)이 상이한 부처 소속이라는 점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장차 국립중앙도서관을 이용하게 될 대상자들에 대한 예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운영 실무자 1, 2인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고 각급 학교도서관의 사서와 도서관 담당 교사가 주축이 된 학교도서관 통신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의 운영 방향과 자료 구축에 힘쓴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 산하 학교도서관 위원회는 자문 역을 맡아 전반적인 지원에 힘쓴다.

소요되는 자금은 협찬, 광고, 후원 등의 형식을 빌려 조달 가능하리라 본다. 자금원은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계, 교육계, 기타 사회 봉사단체들로 정하되, 순수 비영리 단체로서 공신력을 가질 수 있게 유도한다. 특히, 출판계와 서점계 등의 적극적인 후원을 얻을 경우, 유지와 개선에 필요한 자금은 충분하리라 생각한다.

〈구체적 모형〉



Ⅳ. 맺는말

정보화 시대의 독서 교육은 종래의 인격 형성과 수양이라는 차원에서 고전만을 대상으로 규범적인 태도로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건전한 여가선용 이라는 현실적 요구를 건전하게 수렴하여 지도해야 하며, 정보의 수집과 정리, 창출이라는 정보처리의 과정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교과목 차원에서 단순히 독해 지도에 머무르는 독서 교육은 교육 혁명과 정보 혁명의 두 가지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는 데 실패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독해 지도가 교과목 차원에서 진행된다고 할지라도 독서 교육은 학교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구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교도서관은 독서 교육의 개념을 좀 더 현실적인 요구에 알맞게 질적/양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독서 교육의 활성화가 논의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학교도서관의 역할은 앞서 제기한 대로 1)독서 교육의 거점 추구, 2)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용 유도, 3)통합 교육적인 독서 활동 강조, 4)미래 지향적 태도 중시의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독서 교육의 측면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역할이 축소되는 경우를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도서관의 본질적인 기능과 봉사들이 충분히 구현되며, 그 일환으로서 독서 교육이 중시될 때 비로소 독서 교육의 활성화 또한 진정으로 가능하게 될 것임은 사족이다.

〈부록 1〉 학교도서관과 교과목의 연계 지도(작문의 경우)

작문－ '94 겨울 방학 과제(약 30점 배점)

숭문고등학교 1학년 (　)반 (　)번 이름 :　　*

무더운 여름 방학입니다. 평소에 여러가지 이유로 못 읽었던 좋은 책들을 마음껏 읽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에 학교도서관에서는 작문 시간과 연계하여 여러분들의 독서를 도와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직접 과제를 해 나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또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부디 이 과제를 디딤돌로 하여 우리 숭문인들 모두가 책을 많이 읽는 알찬 시간들을 갖게 되었으면 합니다.

(* 평가의 기준은 모든 항목들에 대한 최선의 응답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서점으로 가자!」

(* 주 : 서점에 가서 직접 책을 대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설정한다. 특히 대형 서점에 가서 다양한 책들의 숲을 경험하며, 책을 사러 온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독서의 즐거움과 유용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1. 지금 당장 대형 서점에 가서 책들을 둘러 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읽고 싶은 책들의 종류나 이름을 다섯권 이상 쓰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시오.
2. 가족들에게 권해 주고 싶은 책들의 이름과 글쓴이를 쓰시오(다섯권 이상). (예 : 부모님께나 형제들에게 권해 주고 싶은 책－크로닌의 「성채」)
3. 선물 받고 좋았거나, 선물해 주기에 좋은 책들의 이름과 글쓴이를 쓰시오(선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은 서점에서 직접 찾아 쓰시오).
4. '미래'와 연관된 책들의 제목과 글쓴이를 있는 대로 모두 찾아 쓰시오(또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현재 발간되고 있는 잡지의 이름을 모두 찾아 쓰시오. 예 : 컴퓨터 분야－마이크로 소프트웨어, 소프트 월드, 마이컴, 헬로 PC…).
5. 대형 서점에는 자체의 선전물들이나 독서관련 자료들을 배부해 주고 있다. 그 가운데 적당한 기사를 오려 아래에 풀로 붙이시오.

「집에서 가족과 함께…」

(* 주 : 독서는 혼자 하는 것이지만 집안 환경에도 크게 좌우된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독서와 연관된 논의를 하게 함으로써 독서하는 분위기가 가정에 깃들게 한다.)

1. 감명 깊었거나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책(또는 작품)의 구절이나 대목을 가족 개개인에게 모두 조사하여 그대로 옮겨 쓰시오(시인의 경우에는 원문을 모두 적어도 좋고, 소설이나 기타 갈래의 책들은 인용하여 쓰시오.).
2.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여, 읽지 말아야 할 책, 읽어서 후회가 되는 책들의 종류나 이름을 몇 가지만 적어 보시오.
3. 가족들이 권해 주는 책들의 이름과 글쓴이를 쓰고, 권하는 근거에 대해 조사하여 쓰시오(예 : 아버지가 권해 주시는 책,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불굴의 의지를 키워 주는 책이기 때문에…식으로
4. 가족들과 함께 '토론'할 만한 신문의 사설을

하나 골라 토론한 후, 그 제목을 오려 아래에 풀로 붙이시오(토론 주제의 예 : 기부금 입학제에 대한 사설 찬반 토론이 가능)

「'혼자서도 잘 해요'」

(* 주 : 자신이 직접 독서 체험을 점검함으로써 책읽기에 대한 관심을 높이게 할 수 있다. 이는 상황별 추천도서 목록을 만들 때 실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1. 책을 무척 읽고 싶은 마음은 어느 때 듭니까?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쓰시오. (예 : 비오는 날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더니 좋았다.)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초초해질 때 성경책을 읽었더니 좋았다.'등).
2. 어떤 상황에서 어느 책을 읽었더니 좋았다는 개인적인 독서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계절, 월, 요일, 시각, 감정상태, 특정 사건들을 고려하면 됩니다. 예 : '시험이 끝난후,' '괜히 불안해질 때'등)(예 : 비오는 날에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더니 좋았다.)
   1) 2) 3) 4) 5)…
3.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들의 이름과 글쓴이를 쓰고, 왜 감명 깊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시오(없는 사람은 방학 동안 열심히 좋은 책들을 찾아 읽은 후 쓰십시오).
4. 다음 중 하나를 택하여 완성하시오. 모자르면 종이를 지면 위에 예쁘게 덧붙이세요.
   1) 교육 관련 TV프로그램을 한 편 이상 감상한 후, 자신이 제작자라면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 기획안을 쓰시오. 제작 프로그램의 주제, 제작 희망 이유, 제작 방식 등을 꼭 밝히시오.
   2) 또는,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자신의 감독이라면 만들고 싶은 영화의 줄거리를 직접 구상하여 쓰시오. 즉, 장차 시나리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 줄거리를 쓰시오.
   3) 또는, 좋은 연극을 한 편 보고 자신이 연극의 주인공이라고 가정하고 작품에 관하여 관객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을 쓰시오.
   4) 또는, 신문이나 잡지에서 미담을 찾아 읽은 후, 제3의 인물을 집어넣어 새롭게 고쳐 쓰시오.
   5) 남이 최대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소개하는 글을 쓰시오.
5. 학교도서관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책들의 이름과 글쓴이, 출판사, 가격 등을 쓰시오(특별한 흠이 없다면 가능한 한 구입할 것입니다).
6. '가볼 만한 곳'이라는 주제로 신문에 기고하는 글을 쓰시오(소설이나 기타 갈래의 작품들도 좋음).

〈부록 2〉 독서 지도 연간 계획안의 실제

2.1 다음은 숭문고 도서관의 '94년도 독서 지도 계획안이다. 고1에 해당한다.

1994년 고1 독서 지도 계획안 숭문고 도서관

3월	행사	삼일절, 입학식, 도서관 안내/개관
	신입생을 위한 도서관 소개 : 도서관, 독서, 학업, 생활 (1) 학교도서관의 구체적 소개(도서관 이용 안내/자료 배부) 예 : '학교도서관의 중요성'－매체센터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예 :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점들 예 : 도서의 구성과 이용 방법－열린 교육의 관점 (2) 독서의 중요성 안내(자료 제작/배부) 예 :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책 고르는 기준 예 :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가'－책 고르는 기준 예 : 도움 자료 배부－고교 권장도서 목록, 독립운동 관련 자료 (3) 과제 부여(국어과, 담임과 협조) 예 : 고등학교 생활을 위한 자기 표현 예 : 내가 읽은 책들에 대해 원고지 1~2매 정도 쓰기 * 학부모－독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당부의 편지 발송 예 : 학부모부터 책읽기, TV선별해서 보기 등	
4월	행사	식목일, 보건의 날, 4.29의거, 장애인의 날, 과학의 날, 도서관 주간, 과학/체육 주간
	진로 선택을 위한 활동 : 직업, 전망, 적성과 취미 (1) 자신의 미래 설계와 적성 파악－직업과 전망, 적성 검사 (2) 책소개－'진로 가이드 시리즈 전 5권'(현대과학사) (3) 과제 부여－국어과, 담임, 상담실과 협조 예 : '미래의 나'에 대해 800자 정도 쓰기 예 : '나는 무엇을 잘 하고 무엇을 못하나' (4) 학급 문고 설치 권장, 독서 노트 배부 * 학부모 : 독서(도서관)에 대한 명언 소개, 학부모들이 읽으면 좋은 최근 소설들 목록과 해설 배부	
5월	행사	법의 날, 어린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권농의 날, 석가탄신일, 중간고사, 가정 주간, 교육 주간, 소풍/수학여행
	공부, 놀이, 인간의 삶 : 참다운 공부란? 놀이다운 놀이란? (1) 자료 배부－학생과, 상담실 등 타 부서와 협조 예 : 소풍/수학여행과 연관된 글들－바람직한 놀이 문화와 방법 (2) 책소개－「꼭같은 것보다 다른 것이 좋아」(윤구병, 푸른나무) (3) 시험 결과 처리 지도－담임, 상담실과 협조 예 : 학습 방법, 태도, 성적 등에 관한 도움 자료(메모요령 등) 예 : 각 과목별 공부 방법 교정 안내－과목별 중요 사항 자료 * 학부모 : 학교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부탁하는 안내 편지 발송(도서관에서 구입했으면 하는 책들의 기준 제시)	

6월	행사	현충일, 환경의 날, 한국 동란, 호국·보훈의 달, 계열선택조사
	민족과 전쟁, 인류와 평화를 생각하는 활동 : 전쟁, 평화, 인류 (1) 자료 배부－사회과, 윤리과 등 타 교과와 협조 예 : 전쟁과 핵, 평화 문제에 대한 자료와 관계도서 목록 배부 (2) 책소개－「광장」(최인훈, 문학과 지성사) 등 (3) 과제 부여－국어과, 사회과, 윤리과와 협조 예 : 전쟁을 다룬 문학 작품을 읽고 인상깊은 대목 베껴 쓰기 예 : 평화의 중요성을 다룬 글을 읽고 난 독후감 1～2매로 쓰기 (4) 독서 퀴즈 한마당 개최－참여자 전원 격려 * 학부모 :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을 자녀와 함께 같이 가볼 것을 권유하는 편지 배부(함께 읽으면 좋은 책 목록 첨부)	
7월	행사	제헌절, 국치일(29), 기말고사, 여름방학
	학기를 마무리하는 활동 : 삶의 의미를 찾는 독서여행－양과 질 예 : 8종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품 목록 등 (1) 책소개－1920년대 한국문학 명작들, 가볼 만한 곳 소개서 들 (2) 과제 부여－전 교과와 협조 예 : 관심 분야 스크랩 북 만들기 －1권 이상 예 : 내가 소개하는 책들－원고지 2～3매 정도 쓰고 발표하기 (3) 독서 모둠 조직－방학 중 만나 책에 대해 대화 나누기 * 학부모 : 방학중 생활 지도 요령을 가르쳐 주는 편지 배부 감명깊었던 책(대목)들을 서로 말하는 시간 권유	
	행사	여름방학, 개학식
8월	알찬 방학생활과 새로운 시작 (1) 자료 배부－예전의 과제 중 모범작들 소개 (2) 책소개－서로 자신들이 읽었던 책을 3분 정도로 요약 소개 (3) 독서 모둠 정리－만남 결과를 간단히 보고, 과제 모아 정리 * 학부모 : 자녀들에게 '내가 정한 좋은 책들' 목록을 선정하도록 지도 권유 새학기 지도를 위한 조언 제시	
9월	행사	독서 주간 등
	본격적인 독서 활동 권장 (1) 자료 배부－독서 토론과 도서전시회 진행에 필요한 자료 배부 (2) 책소개－「책과 어떻게 친구가 될까」(안도섭, 소나무) (3) 도서 구입 유도－헌책방 이용 지도, 개인 장서 모으기 장려 * 학부모 : 가정마다 책장 마련할 것을 장려하는 편지 배부 학부모들이 읽을 만한 책들을 분야별로 4～5권씩 소개	

10월	행사 |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체육의 날, 문화의 날, 국제연합의 날, 중간고사, 소풍 우리말과 우리글 사랑 (1) 자료 배부－한글과 우리 문화의 자랑거리 관련도서 소개 (2) 책소개－「우리글 바로 쓰기 1, 2」(이오덕, 한길사) (3) 도서 전시회 등의 행사 지도 (4) 방송 강좌－자체 독서 토론 직접 방송 * 학부모 : 시집과 소설집 선정 소개서 발송, 학부모 권장도서 목록 ('부모님께서 권해주는 책') 작성을 위한 협조 당부
11월	행사 | 학생의 날, 육림의 날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1) 자료 배부－철학 관련 도서 소개 (2) 책소개－「철학이란 무엇인가」(엄정식, 문학사상사) (3) 견학/관람 지도－도서관, 전시회, 공연장 (4) 방송 강좌－도서관 회보/문집 제작을 위한 준비 지도 * 학부모 : 부담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여러 방법들 소개하는 글 배부
12월	행사 | 세계인권선언일, 성탄절, 기말고사, 겨울방학 문학, 예술, 종교, 그리고 인생 (1) 자료 배부－각 부문 관련 도서 소개, 방학 때 읽을 책 목록 (2) 책소개－「빈센트 반 고호」(어빙 스톤, 까치) 세계 명작－작가 위주로 소개 (3) 과제 부여－전 교과와 협조, 방학 동안 읽을 책 목록 배부 예 : 문학작품들 다독 권장－인상 깊은 대목 옮겨 적기 예 : 예술가들의 생애 다룬 전기 읽고 느낌 적기(2~3매 정도) (4) 문집 제작 지도－글쓰기와 편집 요령 안내, 제작 모둠 조직 * 학부모 : 겨울 방학과 책읽기, 독서 능력 개발에 관한 자료 제공
1월	행사 | 새해 첫날, 겨울 방학 새해 새 마음 (1) 자료 배부－정보 통신과 뉴미디어 분야 안내 (2) 책소개－컴퓨터 관련 활용/입문서들 소개 (3) 책읽기－문학 작품 다독/교과별 관련도서 읽기 (4) 제작 모둠 활동－방학 중 서로 모여 문집 제작 활동 유도 * 학부모 : 자녀들의 방학중 여러 활동들을 권장하는 편지 발송
**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후 특별 강좌 : 국어과, 미술과 등 희망 교과	

2.2 다음은 2월중 독서 지도 계획안(전체안)이다. 입학(전)부터 졸업(후)까지라는 기간설정을 강조하고 싶기에 여기에 덧붙인다.

1994년 고1 독서지도 계획안(전체안) 승문고 도서관

2월	행사	졸업식(고 3), 소집일(신입생), 봄방학(고1 · 2), 계획서 작성
고3	사회 진입을 도와주는 활동 : 직장, 대학, 인생에 관하여 (1) 책 목록 배부 (2) 내/외부 강사 초빙 강연(강사/강사료 확정)	
신 입 생	고등학교 진입을 도와주는 활동 : 학업, 생활태도, 도서관(독서) (1) 오리엔테이션 이해를 위한 별도 자료 배부(타 교과와 협조) 예 : 각 과목별 공부 방법 소개의 글 (2) 입학 전까지 읽을 만한 책 목록 배부(10권 정도 소개/해설지) 예 : 「누가 나에게 말해 줄까」(김성권 외, 동녘) 등 (3) 과제 부여(국어과를 비롯 타 교과와 협조, 자유 선택식) 예 : 문학 작품 속의 주인공(등장인물)에게 편지 쓰기 예 : 현존/사망 과학자와 하루를 보낸 가상 이야기 쓰기 예 : 관심 분야 위인들 생애 조사하기 * 학부모 : 도서관과 독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 강조하는 편지 배부 학부모에게 필요한 도서 목록 배부(예 : 자녀 교육 등)	
고1	고등학교 1년간을 돌이켜 보는 활동 : 학업, 생활 태도, 진로 확인 (1) 삶에 관한 조언들이 담긴 책 목록 배부－2~30권 정도 예 : 「명상록」(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등 (2) 구체적인 도움 자료 배부(타 교과, 상담실과 협조) 예 : 뒤떨어진 과목 보충을 위한 각종 자료－학습법, 요약 정리 등 예 : 문/이과/예체능 선택에 따른 자기 적성 분석표－확인용 (3) 과제 부여(국어과를 비롯 타 교과와 협조, 자유 선택식) 예 : 문학 작품 속의 주인공(등장인물)비판하는 글 써 오기 예 : 관심 분야 책 목록 조사해 오기 * 학부모 : 도서관 초청, 학부모를 위한 희망 강의 개최	
고2	고3으로 진입하기 위한 활동 : 학업, 생활태도, 진로 재확인 (1) 삶에 관한 성찰과 설계를 도와 주는 자료 배부(목록, 책) 예 : 대학진학을 위한 자신의 실력과 적성 점검표 예 : 열정적인 삶을 산 위인들의 전기, 수기 등 예 : 다양한 직업의 세계와 자격증 안내 자료 (2) 구체적인 도움 자료 배부(타 교과, 상담실과 협조) 예 : 수험생 수기－학습 방법과 시간 관리－직업 관련 서적들 예 : 1년전 졸업생(대학생, 일반 직장인)들의 글 (3) 과제 부여(타 교과, 동문, 학부형과 협조, 자유선택식) 예 : 관심 분야 전망 조사해 오기 예 : 관심 분야 종사자를 만나고 나눈 이야기 써 오기 예 : 고쳐져야 할 것들 글로 써 오기－학벌 만능주의 비판 등 * 학부모 : 수험생 학부모로서 알아 두어야 할 여러 사항들 배부 * 교직원 : 신학기를 위한 자료 제작/수급	
공통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전문가 강연(일반/독서, 강사, 강사료 확정)	

〈부록 3〉 학교도서관 전용 통신망 메뉴의 시안

우선 컴퓨터를 활용하여 전용 통신망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로고 화면을 만나게 된다. 이어서 학교도서관 전용 통신망(이하 '학통'으로 줄임)에 대한 소개와 환영을 담은 인사의 글을 볼 수 있다.

「LOGO」… 첫 화면(생략)

「MENT」… 인사의 글

> 학교도서관 모임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학통'은 회원 도서관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창의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창출을 통하여 도서관과 교육의 성공적인 만남을 모색하는 전국적인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엔터 키를 쳐서 다음 화면을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메뉴는 다음과 같이 「A」, 「B」, 「C」 등 세가지로 일단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나눈 다음 세분해 가는 방식이 전체 정보에 대한 일목요연한 파악과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 표는 회원들에게만 허용되는 메뉴라는 표시이다.

표는 특별한 경우 추진되는 메뉴라는 표시이다.

「A」정보 안내

> 1)모임 안내 *2)회원 정보
> 3)가입 신청 4)건의 사항
> *5)회원들께 알립니다. 6)각종 도서관 소식
> #7) 특별 행사

「B」통신 도서관

> 8)관련 기사 색인실(분야별 기사 내용)
> 9)최신간 도서 정리실(분류 내용)
> 10) 추천할 만한 각종 자료
> 11)학교도서관 운영의 이론과 실제
> 12)주제가 있는 공간(자유 주제로 토의/토론)
> 13)저어 말씀드릴 게 있어요(학생과 학부형에 대한 독서 상담)

「C」어울마당

> 14)자유게시판(마음대로 써 봅시다)
> 15)우리네 장터(팔고 사기)
> ※16)대화실(모여서 즐겁게, 사랑방, 함께 이야기 합시다.)
> 17)함께 공부합시다(강좌, 연재물)－정보통신란, 바이러스란, 하이텔 사용법, 컴퓨터 각종 언어, CAI, DB, 자유 주제 등
> 18)보물 창고

■「A」항은 '학통' 자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소개하며 가입신청과 건의사항 등을 담는다. 이 항은 시솝(SysOp : System Operator)으로 불리는 운영자가 검색하고 정돈하여 관리한다.

1) 모임안내

'학통'의 구축 과정과 회칙, 운영세칙 등을 공개적으로 밝힌다.

2) 회원 정보

회원정보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데 편리하도록 회원에 한해서 공개한다. 회원 자격은 정회원과 준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구분한다. 정회원의 경우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 교사나 담당교사 등을 각 학교 도서관당 1~2명으로 한정한다. 준회원의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나 학부모, 희망자들(예비교사, 관련학과 대학생 등)로 자격을 제한한다. 특별회원은 현저히 '학통'에 공헌한(할) 인사들로서 출판계, 서점계, 도서관계는 물론 교육계 전반을 두루 포괄한다.

3) 가입 신청 온라인으로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단체장의 공식적인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건의 사항

'학통'의 운영 자체에 대한 건의 사항을 주로 받는다. 접수된 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처리한다.

5) 회원들께 알립니다.

회원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식적인 게시판 역할을 한다. 꼭 알려야 할 정보라 생각되는 내용들을 주로 게시한다.

6) 각종 도서관소식

각종 도서관 소식을 가장 신속하게 알려주는 곳으로서, 특히 학교도서관에 도움이 될 소식들을 주로 담는다. 이를테면, 동대문 도서관에서 관내 학교도서관 담당선생님들과 사서 선생님들에 대한 직무 연수가 있다는 식의 소식이 전해진다.

7) 특별행사

평소와 다른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수시로 개설할 수 있도록 확보한 여유 공간이다. '학통' 주최로 독후감 대회와 같은 행사를 열 수 있다.

■「B」항은 회원들이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통신상의 도서관 본부 역할을 해주는 내용을 담는다. 이 항 역시 시솝이 관리하되 정보 제공자(IP)의 확보와 관리를 치밀하게 평소 살펴야 한다.

8) 관련 기사 색인실

신문이나 잡지 등에 연재된 관련 기사들을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날짜순으로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한다(예 : 1)도서관 2)출판 3)교육...). 나아가 세부 기사들을 주제어를 부여하여 쉽게 찾아보게 배려한다.

9) 최신간 도서 정리실

수서와 정리 작업은 의외로 시간이 많이 드는 복잡한 작업이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학교도서관의 경우 전문적인 분류 작업은 엄두도 내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서는 국립 중앙도서관에서 정리하는 모든 신착도서들의 분류 사항들을 신속히 공개하여 모든 학교도서관들이 서로 똑같은 작업을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게 한다(* 분류 작업으로부터 해방될 때 기존의 카드 목록 또한 꼭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최신간 도서의 정리는 도서 발간 시점과 너무 멀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국립도서관이 매우 빠르게 모든 신착도서들을 정리할 수 있거나 최소한 학교도서관에 있을 만한 자료의 경우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매우 늦을 경우에는 신착도서를 일정 기간 학교도서관 내부에서만 볼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생각해 봄직하다.

도서정리실은 다시 하부 메뉴로 1)한국십진분류 와 2)듀이 십진분류로 크게 나누어 개별 도서들의 세부 정리 사항들을 제시한다. 그에 앞서, '0)최신 한달간 신착 도서'란을 만들어 도서관에 들어온 순서대로 차례로 정리한 내용을 담아 각급 학교도서관에서 일정 기한마다 검색하여 수서와 정리의 자료로 삼게 한다.

10) 추천할 만한 각종 자료

이란 우선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 수 있다.

10.1) 추천할 만한 책들－10.1.1)분류별, 10.1.2)주제별, 10.1.3)상황별, 10.1.4)모임별 등

10.2) 추천할 만한 기타 자료들－10.2.1)멀티미디어, 10.2.2)CAI프로그램, 10.2.3)CD－ROM TITLE 10.2.4)Video/Audio 등

특히, 추천할 만한 책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하여, 읽을 만한 책을 찾는 학생과 학부형들에게 선택을 쉽게 해준다. 여기서 '10.1.3)상황별' 항목은 책의 내용을 상황별로 정리하여 도서 선택을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로 대부분의 책읽기가 상황에 따른 선택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실용적인바, 앞으로 더욱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10.1) 외에 10.2)가 있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매체 센터로서 발전해야 하는 시대적 당면 과제를 반영하고 있음을 뜻한다.

11) 학교도서관의 이론과 실제

하부 항목으로 다시 11.1)학교도서관의 본질, 11.2)학교도서관의 기능, 11.3)학교도서관의 봉사, 11.4)학교도서관 운영의 여러 측면, 11.5)운영 관련 자료 및 기준 등으로 나누어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쉽게 통신을 통해 학교도서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11.6)학교도서관의 실제 란을 두어 회원들 간에 허심탄회하게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여 실제 측면을 중시한다.

12) 주제가 있는 공간

자유 주제로 각급 학급도서관 관련자들끼리 토의 또는 토론을 하는 공간이다.

13) 저어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참고 서비스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무난하다. 책을 비롯한 각종 자료와 도서관 등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에 답변을 즉각 해주는 곳이다. 주제어를 미리 한정하여 많은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쓸 수 있도록 한다. 학생과 학부형에 대한 간단한 수준의 독서 요법도 실천해 볼 수 있다.

■「C」어울마당항목은 회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상호 교류공간이다. 자기가 직접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공간보다 자유로운 공간이다.

14) 자유게시판

'마음대로 써 봅시다'라는 부제처럼 회원은 물론 비회원들까지도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15) 우리네 장터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의 교환이나 처분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장과 같다.

16) 대화실

회원들이 자유롭게 컴퓨터 필담(chatting)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통신 초보자들에게 인기가 높으며, 대화 상대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17) 함께 공부합시다.

여러 가지 관련 중요 분야들을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으로 강좌나 연재물들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다시 세분하는 메뉴를 짤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8) 보물창고

컴퓨터 화일로 정리된 모든 자료들을 자유롭게 등록하고 가져갈 수 있는 곳이다.